

‘쉬었음’ 30대, 3만8000명 늘었다

비경인구 중 21% “1년 내 취업·창업”

비임금근로자, 취업자의 23.4%…역대 최저

올해 일할 능력이 있는데 구직활동 없이 쉬 30대가 1년 전보다 3만8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이유는 ‘몸이 좋지 않아서’였다.

20대 이하의 ‘쉬었음’ 인구도 2만 8000명 늘었는데, 32.5%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답했다.

◆비경인구 8.3만명 ↑…5명 중 1명은 “1년 내 취업·창업할 것”

1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3년 8월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보다 8만3000명 감소한 1616만3000명으로 집계

됐다. 비경인구의 비중은 35.6%로 0.3%포인트(p) 감소했다.

비경인구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최대치를 기록 후 고용 호조세가 이어지자 올해까지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여자가 63.1%로 남자(36.9%)보다 높았고, 연령계층별로는 70세 이상(26.1%), 60대(18.6%), 20대(13.4%) 순으로 높았다.

특히 비경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전년보다 8만3000명 늘었다. 60대(5만2000명)를 제외하고 20대가 2만8000명(0.6%), 30대가 3만8000명(1.3%) 늘면서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20대 이하가 쉬 이유 중 가장 비중

이 높은 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으로 32.5%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4.7%p 증가했다. 그 외 30대(30.0%), 40대(45.7%), 50대(48.0%), 60세 이상(41.0%)에서는 모두 ‘몸이 좋지 않아서’가 가장 높았다.

특히 30대는 ‘몸이 좋지 않아서’(30.0%)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워서’(29.9%)를 앞질렀다.

앞으로 1년 내에 취업이나 창업할 의사가 있는 비경인구는 341만8000명으로 전체 비경인구의 21.1%를 차지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0.5%p 감소했다. 연령대별 의사를 살펴보면 20대(45.0%)에서 비중이 가장 컸고, 그다음 30대(43.7%), 40대(33.2%), 50대(29.3%) 순이었다.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구성비는 여자(34.6%)가 남자(14.8%)보다 높았다.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사유는 ‘본인의 건강 때문

에’(36.9%), ‘육아·자녀 교육’(20.4%), ‘다른 일 또는 활동과 병행’(17.5%) 순으로 높았다.

취업 시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은 200만원~300만원 미만 44.5%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 300만원 이상(24.4%), 100만원~200만원 미만(23.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 3.8만명 증가…비중은 23.4%로 역대 최저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가족·친척을 일컫는 무급가족종사자를 의미한다. 즉 자영업 관련 취업자로 해석할 수 있다.

올해 8월 기준 비임금근로자는 672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8000명 늘었다. 취업자 중 비중은 23.4%로 0.1%p 줄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뉴시스



11월 1일 대한민국 한우 먹는 날 ‘최대 50% 할인’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한우를 고르고 있다. 한우협회는 1일부터 4일까지 하나로마트 양재점 행사장에서 한우 등심과 안심, 채끝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10월 수출 5.1% ↑…20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무역흑자’

반도체 3.1%·中9.5% ↓…올해 최저 감소율

역대급 무역적자에 1년 쯤 수출 감소세를 이어가던 수출입 실적이 지난달 눈에 띄게 개선됐다. 수출은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하고 무역수지는 5개월 연속 흑자세를 이어가며, 20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와 ‘무역 흑자’를 동시에 달성했다.

주력 수출 품목이 줄줄이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한 데다, 장기간 고전을 면치 못하던 반도체 감소세가 최저 수준을 기록한 영향이다. 올해 가장 많은 국가에서 수출 플러스 실적을 내고 지지부진하던 중국도 올해 가장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보다 5.1% 증가한 550억9000만

달러(약 74조4817억원)를 기록했다. 반면 수입은 9.7% 줄어든 534억 6000만 달러(약 72조2726억원)로 집계됐다.

이에 무역수지는 16억4000만 달러(약 2조2183억원) 흑자가 났다. 이는 5개월 연속 흑자세다.

지난해 10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하던 수출 실적은 지난달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 연내 플러스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목표 달성에 성공한 것이다. 앞서 방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분기 중 수출 플러스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수출 감소폭은 올해 1분기부터

개선되더니 지난 8월(8.3%)부터 2개월 연속 한 자릿수로 줄었다. 그 끝에 지난달 플러스로 전환한 것은 물론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 평균 수출도 올해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달 일 평균 수출액은 26억 2000만 달러(약 3조5493억원)로 올해 최고치였던 9월 실적을 한 달 만에 재경신했다. 수출물량도 14.2%나 대폭 증가하며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주력 수출 품목 자동차와 최대 수출 품목 반도체가 실적을 견인했다. 자동차(19.8%)는 16개월, 일반기계(10.4%)는 7개월, 가전(5.8%)은 5개월, 선박(101.4%)과 디스플레이(15.5%)는 3개월 연속 증가했다. 4대 수출 품목인 석유제품·선박·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 등 4개 품목은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뉴시스

광주시, 대유위니아 협력업체 지방세 유예

최대 1년 기한연장·징수유예 등…신청안내문 발송

광주시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지역 협력업체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는 최근 경영난으로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대유위니아 그룹의 계열사 지역협력업체들을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신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부과 예정이거나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하는 것 등이다. 기간은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이다.

신청 대상과 방법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부도 또는 도산위기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이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권형안 기자

광주시교육청 교육금고 NH농협 지정

330원대 예산 관리 금융기관 선정…2027년까지

광주시교육청의 330원 규모 예산을 관리할 은행으로 NH농협은행이 지정됐다.

시교육청은 330원대 예산을 관리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경쟁공고를 통해 NH농협은행을 교육금고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NH농협은행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4년동안 시교육청의 예산을 관리한다.

시교육청은 교육금고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9월18일 금고지정을 위한 일반경쟁 공고를 실시했다. 또 지난달 4일 재공고를 시행했으며 NH농협은행만 참가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NH농협은행의 교육금고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심사·평가했다.

/조선주 기자

중기부,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최

가치사슬전주기 혁신 통해 중소기업 생산성 높인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027년까지 생산성 혁신 선도기업 3000개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생산성 혁신 원패스(POP·Productivity-innovation One Pass)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중기부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올해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내년 주요 글로벌 경제 이슈를 점검하고 ‘중소기업 전(全)주기 생산성 혁신방안’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자금, R&D(연구개발), 인력 등 기능별 분절적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의 혁신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주기 생산성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가치사슬 전주기 혁신기업에 대해 ‘생산성 혁신 원패스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중소기업이 ▲공정 혁신 ▲제품·서비스 혁신 ▲비즈니스 모델 혁신 ▲경영 혁신 등 4대 혁신활동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정부 승인을 거쳐 정책수단을 일괄 패키지로 지원받는다.

종합계획 수립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전담 공공기관이 진단과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최종 승인한다. 이후 승인기업에 사업 우선지원, 특례조치 적용, 규제 신속개선 등 생산성 혁신 원패스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설비자금, R&D, 인력, 마케팅 등 관련 사업의 우선 배정을 통해 승인기업에 최대 130억원이 지원된다.

중기부는 외국인력 장기 확보가 필요한 경우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규정하거나 합병·주식교환·영업양도 등 M&A 추진 시 벤처기업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특례조치를 도입한다.

중기부는 전문적 지식과 자원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과의 매칭을 통해 종합계획 이행의 전 과정을 돕는다.

생산성 혁신 플랫폼 구축을 통해 민간 전문기관·수요기업과의 매칭, 생산성 관련 데이터 분석·제공, 우수사례 공유 등을 지원하고 민간 전문기업의 육성을 위해 창업·연구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등도 지원한다.

그동안 제조 중소기업에 비해 정책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디지털전환 전략을 수립해 지원할 계획이다. /현형안 기자

순천상의,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순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31일 순천상의 컨퍼런스홀에서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세정현안 논의와 애로사항 해소 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순천지역 주요 기업인 50여 명과 광주지방국세청장, 순천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국제행정 등에 대한 특별 강연과 광주지방국세청의 세정관련 지원사업 안내를

포함, 기업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지역 기업들이 경영난에 봉착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본청에 의견을 적극 개진토록 할 것”이라며 “기업인들이 세금면제에 대한 걱정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조순호·조순익 기자

광양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최우수기관’ 선정

광양시는 광양지역자활센터가 2023년 보건복지부 주관 ‘2021년~2022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전남 유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2년마다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8개의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자활성과율(취·창업률, 교육이수율, 자산형성사업유지율 및 성공률 등)과 자활기업의 설립 및 지원, 지역사회 자원 활용도, 종사자의 사업수행 능력 등 15개 평가항목으로 실시됐다.

광양지역자활센터는 급여변동율과 사업단 참여자 증가율, 사회적 기여율, 탈수급률 지표, 광양시의 자활기금 지원과 행정지원, 외부사업 연계 지표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최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광양지역자활센터는 우수지역자활센터 현판과 추가 운영비를 지원받게 됐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개인정보 보호 인증 ‘10년 연속’ 획득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공사)는 대표홈페이지(www.ygpa.or.kr)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인증(ePRIVACY PLUS)’을 10년 연속으로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은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협회(OPA)가 기관의 홈페이지와 온라인 서비스 등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점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개인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물리·관리적 보호조치 등 총 110개 항목을 평가하여 결과가 우수한 사이트에 부여된다.

공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과 안전조치 의무사항 준수, 보유기간 경과 시 즉시 파기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현 사장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도가 날로 높아짐에 따라, 대표홈페이지의 안정성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조순익 기자



현대차와 기아가 국내 최대 쇼핑 축제인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여한다고 1일 밝혔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쇼핑 축제로 이달 1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며

2400개 기업이 참여한다.

현대차는 페스타 기간 동안 총 23개 차종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기차 3개 차종을 포함한 승용·레저용차량(RV) 21개 차종 2만 3000대, 상용 2개 차종 1500대를 할

인해 준다. 주요 차종별로는 ▲캐스퍼 최대 17% ▲코나 최대 200만원 ▲팔리세이드 최대 10% ▲그랜저 최대 400만원 ▲제네시스 G80 최대 10%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상용차량은 ▲파비스 최대 500만원 ▲마티티 최대 400만원 등이다.

상용차량은 할인 외에도 ▲파비스 정상 금리 기준 15%P 인하 ▲마티티 2.9%(36개월 이하)의 저금리로 할부 구매가 가능하다. 전기차는 ▲아이오닉 5 최대 600만원 ▲아이오닉 6 최대 600만원 ▲코나EV 최대 400만원의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기아도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올해 최대 수준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차종별로는 ▲K5(하이브리드 포함) 최대 7% ▲카니발(카니발 하이리무진 포함) 최대 7% ▲봉고EV 최대 300만원 할인된다.